◇영국국립도서관이 공개한 고대 인도문자로 기록된 세계 최고 불경.

세계 最古 불경 발견

자작나무껍질에 고대 인도문자

영국국립도서관 공개

현존하는 불교기록중 가장 오래된 불경이 발견됐다.

런던 소재 영국국립도서관이 18개월전 골동품 거래상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이 불경은 자작나무 껍질에 고대 인도문자로 석가모니의 가르침과 시를 기록한 것들로 모두 60여개 조각들로 이뤄져 있다.

전문가들은 이 불경을 인도 북구 간다라 지방의 고대 불교도들이 사용하던 경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불경의 자세한 입수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아프가니스탄 지방의 토기안에 2천년 이상 보존돼 있다가 최근 발견돼 영국으로 흘러든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국립도서관으로부터 해독을 의뢰받은 고문자 전문가인 리차드 살로만 교수(美 워싱턴대)는 이 불경의 글자가 고대 인도문자임이 확인됐으며, 내용을 해독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봉수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는 "사진에 나타난 문자를 볼때 6단계의 변용을 거친 브라흐미(인도 고문자)의 3단계 형태의 문자로 현존 팔리어문헌과 비슷할 가능성도 있다"며 "1세기에 제작된 것이 맞다면 대승불교보다는 원시불교나 부파불교의 문헌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불경은 서기 1~2세기경 제작된 팔리어 '법구경'으로, 이번에 발견된 불경은 팔리어 '법구경'보다 1백년 정도 더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日 대정신수대장경 수록 '화엄경문답'

의상대사 강의록 '추동기' 일부

한국교원대 김상현교수 주장

일본의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修大藏經)'에 수록돼 전하고 있는 '화엄경문답(華嚴經問答)' 상하 두 권이 그동안 알려졌던 중국 당대(唐代)의 승려 법장스님의 저술이 아니라 해동화엄종(海東華嚴宗)의 창시자인 신라시대 의상스님(義湘, 625~702)의 강의를 기록한 '추동기(錐洞記)'와 동일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問此他已成佛邦,何爲自未成佛乎. 答邦他佛之義非無,而遠蹤非近緣,所以諸佛爲衆生設佛德, 意爲欲令衆生自亦得彼果故令修行. 是故衆生證自當果德, 爲欲得彼故不惜身命修行. 佛果故修行, 是故正令吾令發心修行. 佛但吾當果已成佛, 吾當果已成佛非他佛也. 此義不疑怪也. 又他已成佛, 他已成佛, 即是自當果佛. 所以者何, 他成佛時即得佛時即得三世佛平等果故, 又吾當果佛即是他今成佛. 所以者何, 吾得當佛是他今成佛. 所以者何, 吾得當佛世佛平等法故, 如是展轉更互平等 平等無碍 盡別果德皆化今吾令修行, 共薩也, 或今吾身全體如來疑佛等是

◇일본 대정신수대장경에 전하는 '화엄경문답'(사진 아래)과 신라 의상스님의 화엄경 강의 내용을 기록한 '추동기'의 동일한 내용 부분.

◇김상현교수

한 내용을 그의 제자 지통(智通)이 핵심을 간추려 문답형식으로 기록한 것으로, '법계도기총수록(法界圖記叢髓錄)'과 고려시대 승려 균여의 저서에 15편 정도가 전할 뿐 완전한 것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화엄경문답'이 법장스님의

기존 唐법장스님 저술로 알려져 사실 확인되면 화엄학연구 도움

김상현 교수(교원대 역사학과)는 지난 2일 '화엄경문답'과 '추동기'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그동안 의상스님의 대표적 저술인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에만 의존해온 의상의 화엄사상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동기'는 의상이 중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뒤 소백산 추동에서 90일간 화엄경을 강의한 내용을 제자가 기록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저술로 일본에 처음 전해진 것은 914년. 그러나 일본에서는 그동안 이에 대한 진위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며, 10여년전부터는 일부학자들에 의해 신라시대의 기록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특히 '화엄경문답'이 신라시대 작품이라고 주장해 오던 일본의 불교학자 이시이 고세이(石井公成)는 지난 2월 출간한 '화엄사상의 연구'에서 '화엄경문답'은 의상의 강의를 제자가 기록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교수는 일본학계의 이같은 연구성과에 주목,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 전하는 '추동기'의 문답 15편과 '화엄경문답'의 1백64편을 정밀하게 비교, 분석한 결과 균여의 저서 등에 전하는 '추동기'의 일문(逸文·탈락되거나 빠진 문장)은 15회 정도인데 이들 인용문 모두를 화엄경문답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추동기 중의 같은 부분을 중복해서 인용한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제외한 9회의 인용문 1천1백여자가, 극히 몇글자를 제외하고는 화엄경문답 중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권탄준 교수는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의상스님의 저술이 빈약한 상태에서 이번 발견은 획기적 사실"이라며 "의상스님의 화엄사상은 물론 그 변천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인터뷰

국립문화재硏 명예퇴임 장경호 소장

"이젠 능력있는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 주어야죠. 그리고 연구소도 새사람을 만나 새로운 활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퇴임을 자청했습니다."

지난 1일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용퇴한 국립문화재연구소 장경호 소장은 정년을 2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자청해 자리에 연연해하는 공직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던졌다.

61년 문화재관리국의 전신인 황실사무총국에 발을 들여놓은 장소장이 국립문화재연구소장직을 맡은 것은 지난 87년. 그동안 유적조사실을 비롯 경주·부여·창원문화재연구소와 목포해양유물전시관(현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을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미륵사지·경복궁 등의 수많은 발굴조사를 통해 학계에 방대한 연구자료를 제공했다.

"소중한 문화재 내몸처럼 돌봐야죠"

그런 그였지만 그래도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오히려 크다. 소장재임 10년동안 문화재연구소를 명실상부한 국가연구기관으로 육성시키지 못했다는 것과 연구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불교의 경우만 보더라도 수많은 성보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관리하는 인력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문화재를 자기 몸처럼 아낄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합니다." 문화재를 보호·육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다루는 인력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장소장은 앞으로 대학강의(서울대·동국대)와 신라사찰건축을 종합적으로 재조명하는 책의 집필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

"정신가치 중시해야 참된 복지"

물질지원보다 종교적 이해 더 중요

이혜숙씨 논문서 주장

지난 94년 동국대에서 '불교사회복지학의 체계화를 위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혜숙 박사(41)는 최근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인 '임상사회복지에서의 Spirituality 개념화를 위한 연구'에서 우리의 사회복지는 지금까지 물질적 원조와 그 정책화에 치중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인간의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삶의 총체적 질적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박사는 임상사회복지의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도움을 받는 사람)간에 'Spirituality(정신과 관련되는 것이나 종교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 이해가 사회복지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고찰하면서 모든 종교는 개인적 자아를 초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전제하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공유할 수 있는 종교적 원리를 강조했다.

즉 클라이언트의 정신적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종교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기본 지식이 선행돼야 하며, 이와 아울러 Spirituality로부터 인간의 최대가치를 이해하고 중시함으로써 진정한 사회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박사는 미국 켄사스대학에서 '종교와 사회복지'를 연구중이다.

"헤겔 空집착 불교의 숲 못봤다" 주장

가산硏 강연회 참석 이동인·볼파르트교수

◇독일철학자 헤겔

◇이동인박사

◇볼파르트교수

무심론등 동양사상 서구사상 능가…상호 융합해야

변증법으로 대표되는 18세기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철학자 헤겔(1770.8~1831.11)은 불교를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이해했을까.

지난 2일 가산불교문화연구원과 한국헤겔학회가 경국사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킨터 볼파르트 교수 초청 특별강연회'에서는 헤겔의 불교관과 불교를 비롯한 동양사상이 개인주의 풍조가 만연해 있는 서구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방향이 제시됐다.

이동인 박사(명지대)는 '헤겔의 불교이해' 주제발표에서 헤겔의 불교이해는 대승불교의 '空'사상에만 집중돼 있는 등 불교에 대한 정당한 파악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헤겔의 변증법적 사고는 본질적으로 기독교적 종말론적인 세계관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시작에서 종말로 나아가면서 자신의 실체를 인식, 재생성해 가는 것이나 불교적 세계관은 종말론적 역사관이 아닌 '윤회'의 순환론적 역사관으로 반복의 조건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정신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헤겔의 변증법과 중관철학의 변증법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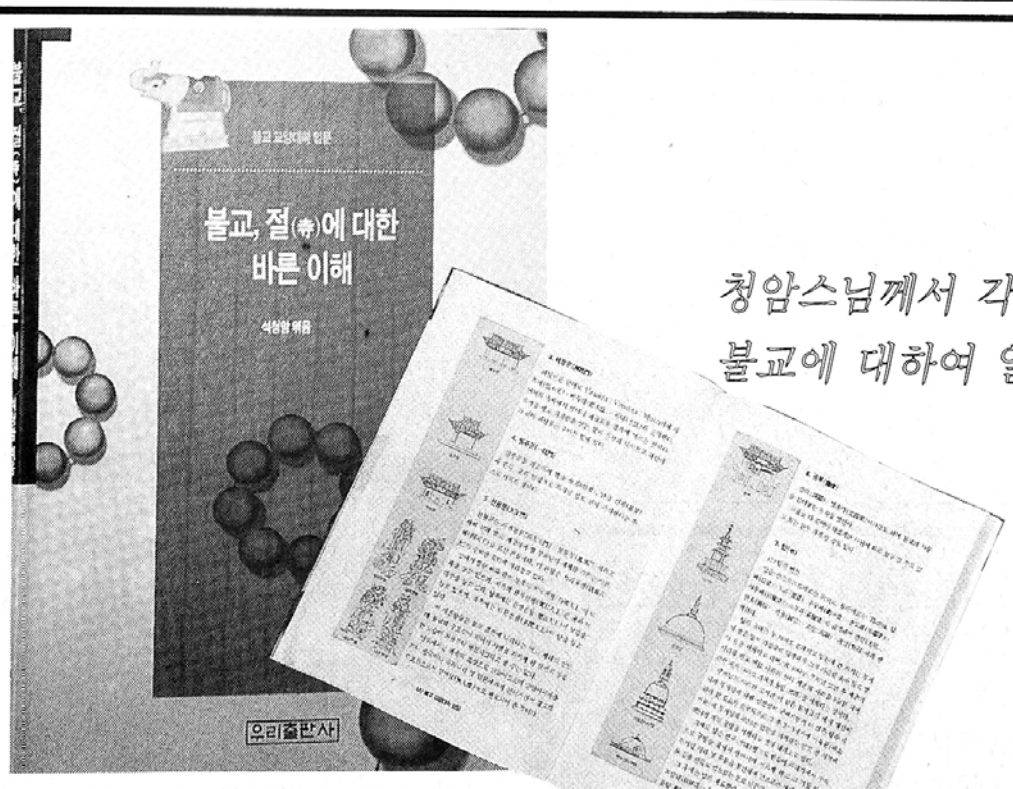
이어 발표에 나선 킨터 볼파르트 교수(獨 부퍼발대 동아시아연구소장)는 '중국과 헤겔' 주제발표를 통해 자연과 사회속에서 인간을 살피는 연기적 철학이 담긴 동양사상과 서양철학의 융합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킨터 볼파르트 교수는 우선 헤겔은 불교를 '자기 내적존재'의 종교로 규정하고 도교를 철학이나 종교로 구분하지 않은 채 道를 이성으로 파악하는 등 동양종교를 동양사회에 대한 관심의 틀안에서 '자연종교'의 범주로 분류하고 이해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교는 인간에만 초점을 둔 서구사상과는 달리 인간과 자연이 하나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으며, 도교의 영향을 받은 선불교 역시 도덕적 윤리 문제 등 모든 환경에서 깨달음을 강조해온 사상으로 선불교의 무심론과 도교의 무위자연사상은 헤겔이 파악했던 것 그 이상으로 깊은 철학을 지닌 동양사상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유럽의 철학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성인들은 동양종교와 문화를 배우는데 인색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지적능력의 한계를 인식 중국을 비롯한 동양과 지적인 상호교류를 꺼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제는 서구에서도 불교, 도교를 비롯한 동양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 검토하는 비교철학의 필연성을 인정해야 하며, 인생의 참의미를 올바르게 일깨워 줄 수 있는 동양사상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명우 기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듯이
배우는 것은 물건을 옮기는 것이요
지혜로 터득하는 것은 유무를 옮기는 것이라.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워도
그를 행하지 않으면 이 책은 무용지물이라
- 서문중에서 -

정가 :6,000원

불교 교양대학 입문

불교, 절(寺)에 대한 바른 이해

청암스님께서 각 사암에 불교 교양대학을 개설 하시는 스님, 그리고
불교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불자님께 쉽게 접할수 있도록 펴낸 교재 입니다.

96년 7월 17일 출판 7월 23일 2차 출판

- 이 교재는 각 사암에서 주 1~2회로 3, 4, 5, 6개월 코스로 강의 할 수 있는 불교 교재 입니다.
- 이 교재는 불교을 알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아주 쉽게 불문에 귀의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 교재는 불교 예법부터 불교건축물, 기초교리 반야심경 강의 까지 손수 그림과 함께 강의한 것입니다.
- 이 교재는 청암스님께서 직접 95개의 건물, 불상까지 자세히 편집되어 있습니다.
- 이 교재로 혹 사암 스님께서 강의 하신다면 교재겸 필기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페이지마다 메모 할수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 이 교재는 스님이 강의 하지 않아도 불교에 대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 이 책은 법보시 용으로 구입 하셔도 됩니다.
- 이 교재는 전국 불교서점에 있습니다.
- 이 교재가 한권이라도 필요 하신다면 전화로 주문하시면 즉시 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 만약 다량으로(50권) 주문 하시면 택배로 신속히 보내드리며 권당 1,200원을 할인합니다.
- 청암스님께서 이 책의 작은 이익금은 금하선원 어린불자들을 부처님께 참배 시키는데에 쓰신답니다.
- 많은 스님께 합장 하옵니다.
  저의 청암스님의 땀 흘리는 모습은 비오는날 연잎에 티 없는 물방울과 같습니다.

주문 문의 전화 : (02)445 - 3261 금하선원 금하선원법우회 : 총무부 총무 장묘진성 합장